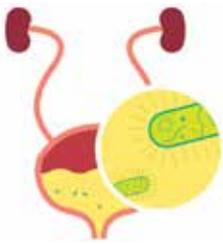


요시험지 검사,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시험지 검사 여부 판단(To Dip or Not to Dip)’은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의 요로 감염(UTI) 진단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증거 기반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요로 감염으로 인한 항생제 사용과 병원 입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안내서는 요로 감염과 ‘요시험지 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치료 경로를 설명합니다.

노인의 소변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노인의 소변에 박테리아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항생제가 필요한 감염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테리아는 노인의 소변에서 무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50%의 노인이 소변에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장기 요로 카테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100%로 증가합니다.

요시험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요시험지(dipstick)는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의 요로 감염 진단에 자주 사용됩니다. 소변에 박테리아가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질산염’(박테리아 마커) 또는 ‘백혈구’(백혈구 마커)에 대한 양성 결과는 정상 소견일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요시험지 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넘어짐이나 졸음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있을 때는 종종 요로 감염으로 부적절하게 진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진단을 놓치고 불필요한 항생제를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 득보다 실이 많을까요?

항생제는 강력하고 귀중한 약입니다. 박테리아는 항생제 내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항생제가 정작 필요할 때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내성 박테리아는 노인 요양원 환경에서 매우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투여받는 노인에게는 메스꺼움, 배탈,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흔히 발생합니다. 항생제 씨디피실 설사(또는 ‘C. diff’)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항생제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박테리아 감염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시험지 검사 여부 판단’ 임상 경로



노인 요양원 직원은 모범 사례 지침에 기반한 임상 경로(Clinical Pathway)를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요시험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원은 임상 경로를 사용하여 요로 감염이나 다른 원인을

나타내는 증상과 징후를 평가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집중합니다. 요로 감염이 의심될 때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생제 치료를 위해 소변 배양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관리자 또는 IPC (감염예방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agedcarequality.gov.au/antimicrobial-stewardship

NHS 노팅엄셔 카운티 카운슬의 ‘요시험지 검사 여부 판단’ 프로젝트와 애니 조셉 박사의 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시험지 검사 여부 판단’은 영국의 요양원에서 성공한 NHS 품질 개선 프로젝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버전 2 (2022년 5월)



Australian Government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